

한국노동운동의 형편

1. 서론

한국노동운동의 형편은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노동운동의 발전은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이 "민주주의 혁명" 주체

농민은 소상품생산자로 폭넓게 존재

도시빈민이 노동자와 동맹세력

한국노동운동의 형편은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노동운동의 발전은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노동운동의 형편은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노동운동의 발전은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노동운동의 형편은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노동운동의 발전은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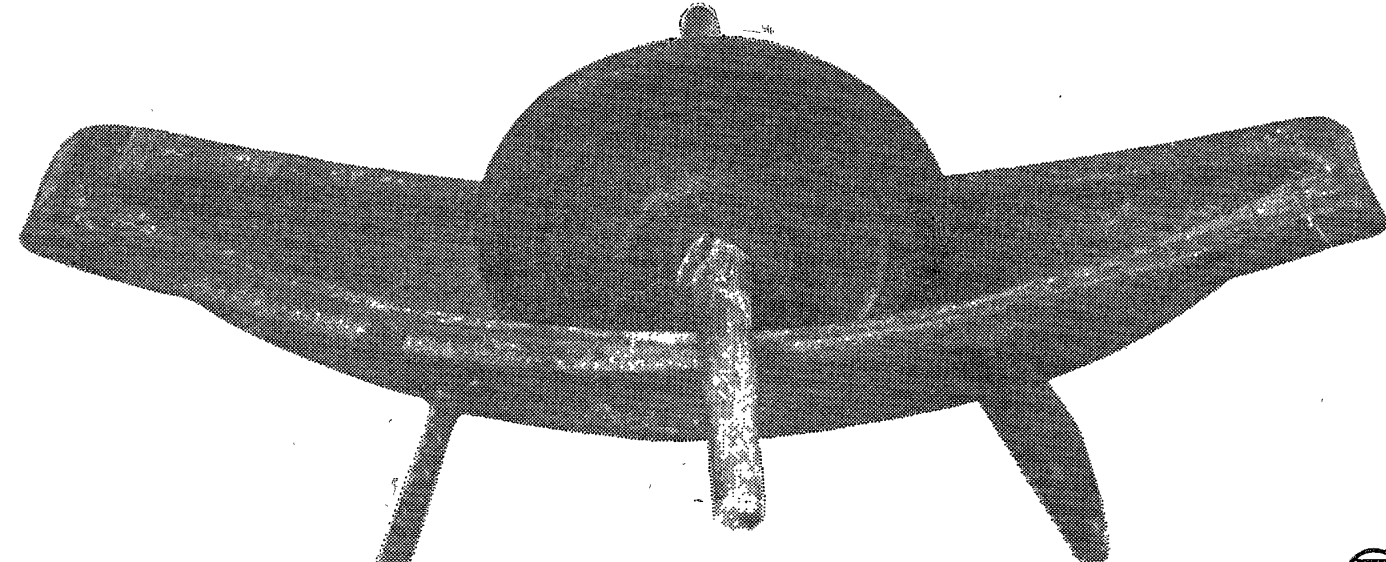
한 관 석

계급본질은 착취·비착취의 관계 도시빈민이 노동자층의 저임금유지 기능

관계 언론

한국노동운동의 형편은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노동운동의 발전은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수대에 걸쳐 많은 생명을 구한 이 약연(藥礮)도
쇠붙이에 생명을 불어넣어준 우리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

제24회 본사 학술상 자연과학분야 본상

1. 著 論

한국의 곤충학 연구에 있어서는 곤충학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곤충의 생태, 분포, 발생, 진화, 그리고 곤충의 생태계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곤충의 생태, 분포, 발생, 진화, 그리고 곤충의 생태계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곤충학의 기초를 다지고, 곤충의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밝히려는 것이다.

2. 著 書

본 논문에서는 곤충의 생태, 분포, 발생, 진화, 그리고 곤충의 생태계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곤충학의 기초를 다지고, 곤충의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밝히려는 것이다.

II. 調査方法

본 논문에서는 곤충의 생태, 분포, 발생, 진화, 그리고 곤충의 생태계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곤충학의 기초를 다지고, 곤충의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밝히려는 것이다.

산림에 서식하는 거미類의 季節的發生에 관한 研究

포식적거미로 生物的防除이용

좁은대거미 7월에 가장 높은 발생

III. 結果와 考察

본 논문에서는 곤충의 생태, 분포, 발생, 진화, 그리고 곤충의 생태계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곤충학의 기초를 다지고, 곤충의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밝히려는 것이다.

심사평

본 논문은 곤충학의 기초를 다지고, 곤충의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 해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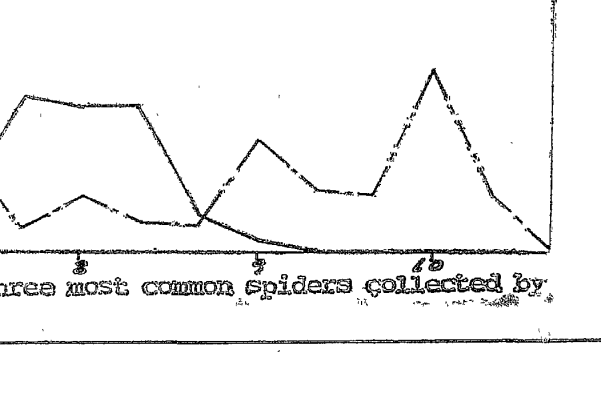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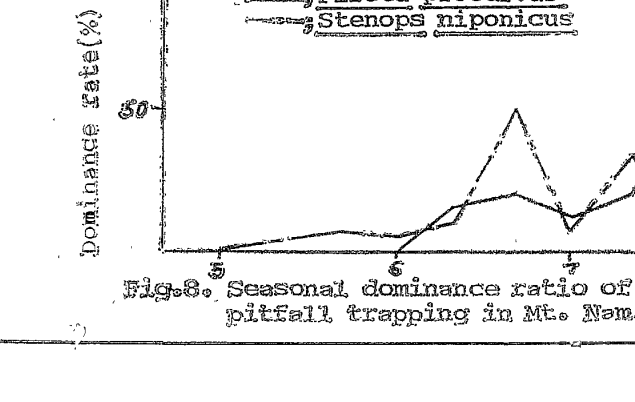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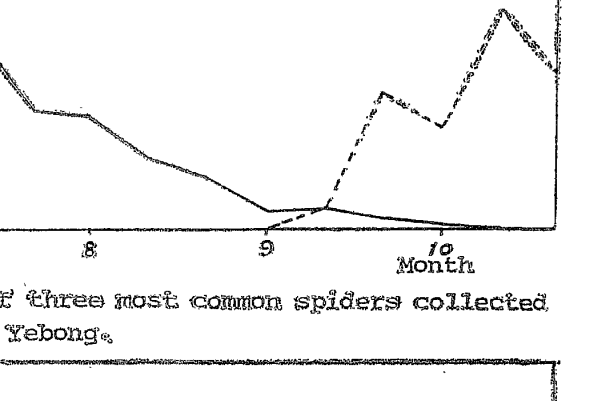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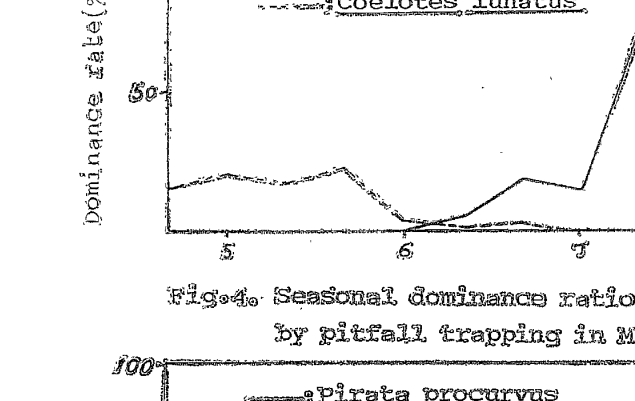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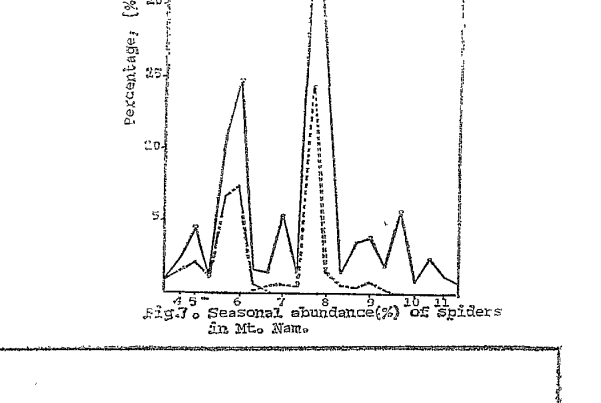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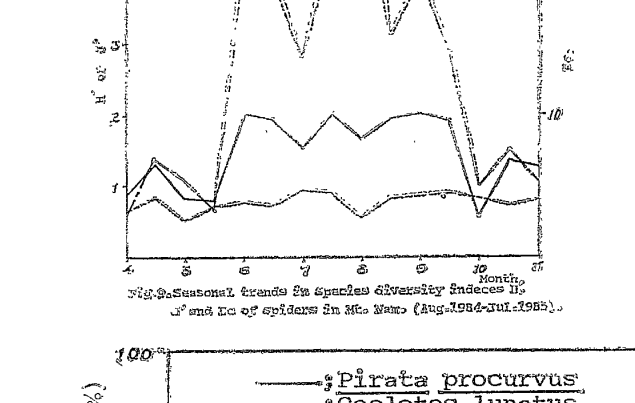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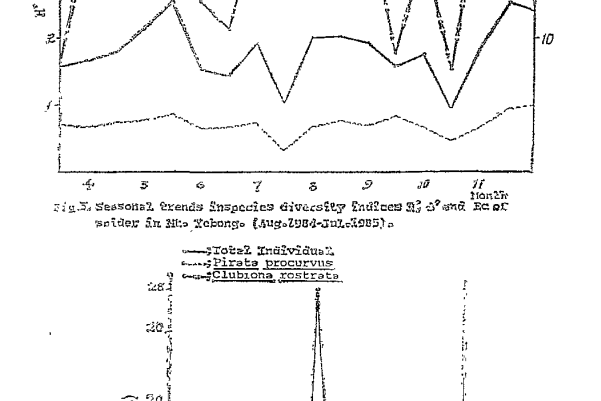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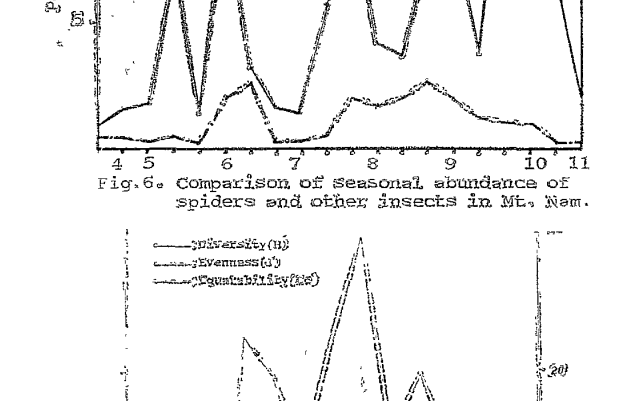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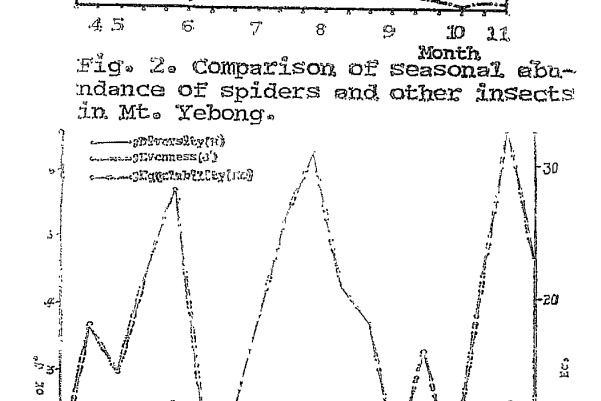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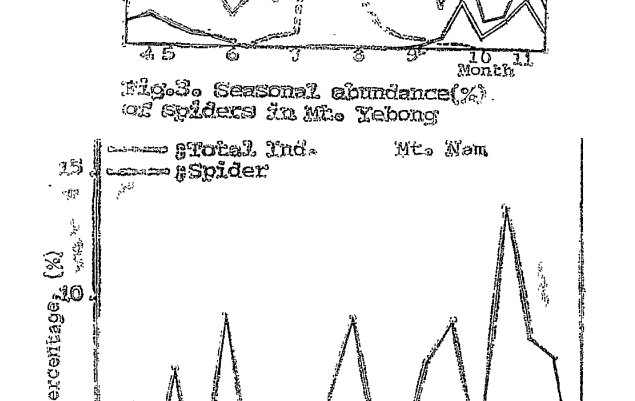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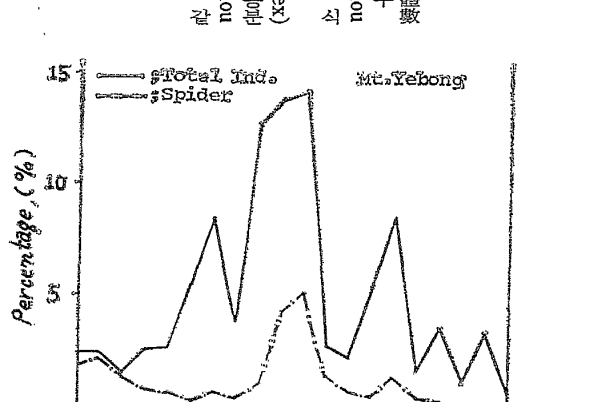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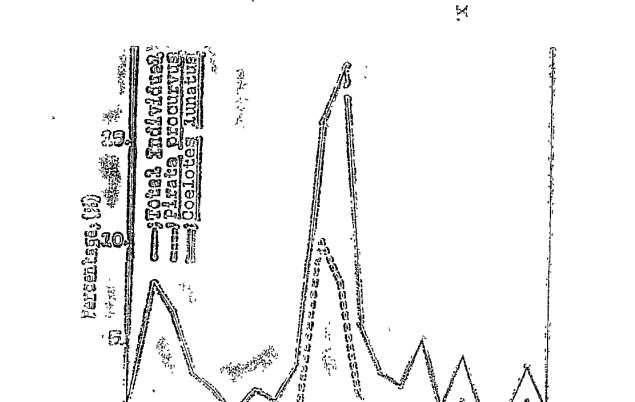
본 논문은 곤충학의 기초를 다지고, 곤충의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밝히려는 것이다.



당선소감

본 논문은 곤충학의 기초를 다지고, 곤충의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밝히려는 것이다.

본 논문은 곤충학의 기초를 다지고, 곤충의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밝히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곤충의 생태, 분포, 발생, 진화, 그리고 곤충의 생태계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곤충학의 기초를 다지고, 곤충의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밝히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곤충의 생태, 분포, 발생, 진화, 그리고 곤충의 생태계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곤충학의 기초를 다지고, 곤충의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밝히려는 것이다.

제24회 본사 학술상 사회과학분야 장려상

「事實婚」

본사 학술상 장려상 수상작인 「事實婚」은 이종필 박사가 사회과학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책은 사실혼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인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며, 특히 사실혼의 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 책은 현재까지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작 중 하나로 꼽힌다.

「事實婚」의 법적 지위

본사 학술상 장려상 수상작인 「事實婚」은 이종필 박사가 사회과학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책은 사실혼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인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며, 특히 사실혼의 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 책은 현재까지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작 중 하나로 꼽힌다.

事實婚보호에 대한 考察



이종필

본사 학술상 장려상 수상작인 「事實婚」은 이종필 박사가 사회과학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책은 사실혼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인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며, 특히 사실혼의 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 책은 현재까지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작 중 하나로 꼽힌다.

現行 신고없는 혼인 公示性미약

본사 학술상 장려상 수상작인 「事實婚」은 이종필 박사가 사회과학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책은 사실혼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인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며, 특히 사실혼의 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 책은 현재까지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작 중 하나로 꼽힌다.

事實婚 보호가 국민의 행복증진에 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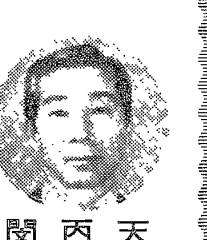
혼인은 사회정의의 위해 입법적 조치 불가피



본사 학술상 장려상 수상작인 「事實婚」은 이종필 박사가 사회과학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책은 사실혼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인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며, 특히 사실혼의 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 책은 현재까지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작 중 하나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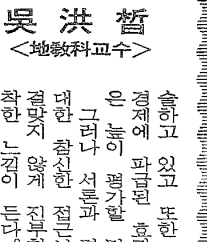
한상진



한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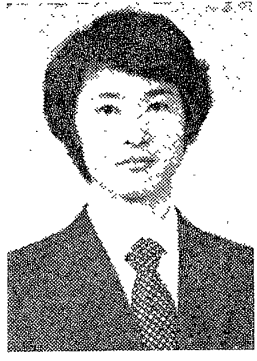


한상진



한상진

본사 학술상 장려상 수상작인 「事實婚」은 이종필 박사가 사회과학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책은 사실혼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인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며, 특히 사실혼의 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 책은 현재까지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작 중 하나로 꼽힌다.



河 宗 元
〈外大장사・신문방송학〉

1
2
3

大學신문과 日刊신문의 방향성

80년 이후

大學신문과 日刊신문의 방향성

大學신문과 日刊신문의 방향성

大學신문과 日刊신문의 방향성

「언론기본법」 폐지가 당면과제

대한민국은 세계에 대한 용기 있는 비판필요

대한민국은 세계에 대한 용기 있는 비판필요

大學신문과 日刊신문의 방향성

大學신문과 日刊신문의 방향성

大學신문과 日刊신문의 방향성

大學신문과 日刊신문의 방향성

大學신문과 日刊신문의 방향성

大學신문과 日刊신문의 방향성

大學신문과 日刊신문의 방향성

大學신문과 日刊신문의 방향성

大學신문과 日刊신문의 방향성

中等教師校監昇進

中等教師校監昇進

中等教師校監昇進

역사산책

역사산책

역사산책

자동차 중장비 운전병

자동차 중장비 운전병

자동차 중장비 운전병

아세아 외국어 학원

아세아 외국어 학원

아세아 외국어 학원

30년 전통의 대학생을 위한 外國語專門 Training Center

30년 전통의 대학생을 위한 外國語專門 Training Center

30년 전통의 대학생을 위한 外國語專門 Training Center

87년도 陸軍 타행정병모집

87년도 陸軍 타행정병모집

87년도 陸軍 타행정병모집

YMCA 英語・日語・中國語 文

YMCA 英語・日語・中國語 文

YMCA 英語・日語・中國語 文

이달의 시

◇이 저녁에도 저승비

<예술계 11월호>

浪 草 萬 作

◇사랑곳 63

<월간문학 11월호>

김 초 혜 作

인간은 언제나 현상(現象)에서 이데아를 바라보려 한다. 설혹 눈을 부릅뜨고 아무성치는 악마구리의 세상에 서도 그런 마음가짐이라야 참됨을 볼 수 있고, 또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심지어 전 너른에 있는 죽음까지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이란 인간이 언제나 갖 이하게 되는 단 하나의 명제(命題)다.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명제가 자기 앞에 담도했다 느낄 때 필사의 오만과 시기와 질투를 거두고 당혹, 초조와 불안으로 추한 불꽃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란 가장 진실한 자아의 爆(폭)이다. 태어나서 죽음이 이르는 사이를 살아라고 할 때 여기 가장 중요한 인간의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

삶과 죽음사이의 결별언어 나열

김초혜 감정절제와 객관시각 노력보여

한다. 11월에 발표된 시(詩) 중에서 浪草萬의 <이 저녁에도 저승비> (예술계)와 金初惠의 <사랑곳63> (월간문학)은 죽음의식과 사랑의 깊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 김 초혜의 장마에도 비 한방울 맞아보지 못하고 어는 반사신(半屍身)처럼 후줄근히 버려진 우산이나 펼쳐놓고 이 불날에 마지막 오는 비를 맞으며 가버린 그네라도 만나 호젓한 찻집이나 낮선 주막아래도 둘러차서 마지막 술 한잔 기울이면 그대 곧 세상 사는 기쁨이겠는데

술도 못하고 먼지 자욱한 세상을 이 저녁에도 오는 저승비를 맞으며 필죽거리는 쓸쓸한 귀가(歸家)의 발 길이어...

<이 저녁에도 오는 저승비> 시의 분위기로 보아 삶과 죽음 사이를 사색하는 결별의 언어와 같다. 「비 한방울 맞아보지 못하고」에서 1연의

마지막 「그대 세상사는 기쁨이겠는데」의 사이에 「버려진 우산」과 시인이 한때 걸터 후줄근한 모습을 영상화시킨다. 이승의 마지막같은 비를 맞으며 가버린 「그네」와 달콤한 한잔의 술과 차를 소망하지만 이를 수 없는 거리가 있어 시인의 슬픔이 이 두어진다.

2연의 「이 저녁」 그리고 「저승비」의 에피세트로 하여 시

한 잔과 술 한잔의 기쁨을 알고 가는 넋넌한 마음에서 정(情) 많은 한 인간, 시인의 의외한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맑고 깨끗한 삶을 바라고 아픈생이였을지라도 죽음의 길에 단단 천원으로도 이를 수 있는 희망을 노래하는 가난함이 오히려 깨끗한 삶을 누린자만이 깨끗한 죽음을 누릴 수 있다는 비

이를 수 있으리

아름의 열매가

다른 모습으로

커와도

세상과 다른 쪽으로

돌아 누워

제일로 맑은 벗

자랑하며

서로 새로와지리

<사랑곳 63>

金初惠의 <사랑곳>엔 「너」와 「나」의 사이에 무엇이라

죽음과 사랑의식의 표면화

의 전 암시가 절죽거리는 「쓸쓸한 귀가(歸家)」로 체념이 절충된다.

죽음의 이미지인 「저승비」의 반복이 시 전체의 분위기

를 어떻게 채색한 유언같은 가락이다. 그러나 흔히 들기짓은 술

유에 더욱 연속해진다. 우리말에 죽음조차도 복이

라 했던가. 이 시에는 그런 투명한 의식을 바라보는 처

연(緣) 함이 갖들어있다. 그대결

머를 데 없어도

마음에 집착

떨어 내면

세상 가득

결집 없어

그대 결에

는 구조를 이루어 「어떻게」라는 식으로 마무리 되었다

간명한 시작구조와 선명한 언어 탄력이 마치 마른 꽃내

음에 나는 것 같다. 화려한 숨기고 그윽함을 보이는가 하면

지금까지 절제되고 응축된 언어에서 또다른 세계를 보이는 중첩된 이미지가 오버

랩된다. 흔히 사랑이라는 주제는 다분히 속스러운과 감정을 노출하기 쉽다. 감성을

대상에 어떻게 대상화 하는

나는 감정의 절제와 객관화의 눈을 갖기 위한 지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김초혜의 사랑이 어느 사람과 다른 것은 냉철한 객관화에서 사람이란 주는 것으로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보시(布施)적인 사랑의 색채를 발견하게 되는데 있다. 「그대결머를 데 없어도」라는 없음



蔡 洙 永

<동문·문학평론가>

(無)의 상태를 「그대 결에이를 수 있으리」의 있음(有)에 이르기 위한 방법론은 「마음에 집착/떨어내면」이라는 지혜를 터득했기 때문에 「서로 새로와지리」의 「서로」에 집념을 풀어 놓고있다. 서로(너와 나)가 「맑은 벗」「자랑」을 남을 「새로운」이라는 토하나 세계를 확보하면서 사랑은 보다 崇高하게 용겨운 곳만이 될 수 있다.

최루가스 가운데 서서

東岳路

각종 교내·외 시위가 있을 때마다 많은 학생들이 「보 메르나」는 식으로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요즘 우리네 풍조다. 이것은 本校의 경우만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학생시위는 이제 우리사회에서 고철화되어 버렸다. 아니 어쩌면 일이 터질 때마다 으레 해야 할 행사처럼 인식되고 있



<해학문 수위>

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시위에 가담하지는 않더라도 당국에서 말하는 소위 「극렬학생(?)」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사회가, 우리현실이 많은 구조적 모순을 내

실 가운데의 지점에 서있다고 표현한다면 너무 과장일까?

중문(해학문) 수위 김인호(37세) 씨. 전남(7월) 시위로 인해 아지도 코가 매개한 가운데 그를 만났다. 인터뷰는 무슨 인터뷰냐고 한사코 거부하는 김씨를 붙잡고 우선 필들지 않는다는 지극히 당연한(?) 질문을 던지자 약간은 어색한 표정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1년정도 증후를 지켜왔다는 김씨는 협회원상함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자기가 무일 일겠느냐고 응답을 피하면서도 「정치거나 대학생이나 모두 많이 배운 사람들일텐데 어째서 폭력이 난무하는지 모르겠다」며 「하루속히 어떠한 계기가 마련돼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와야한다」고 걱정한다.

「학생시위가 있을 때마다 뒷정리할 걱정이 앞선다」는 그는 어떤날은 새벽 2시에 불을 뿌려야 한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최루가스를 가라앉히려고 물을 뿌리고 있을때 왜 물을 뿌리느냐고 항의하는 학생들이 가장 당혹스럽다」고 고발한다.

시위대가 정문으로 나갔다

“오늘도 제발 아무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안타까움을 절감해야 하

나보다. 순수한 눈으로 보나 나

은 사회를 추구하다 「음공」 「죄결」으로 불리는 학생

들과 정경유치에 급급해 물리적 탄압을 불사하는 권

력계층과의 첨예화된 대립의 악순환을 우리세대가 처

한 비극으로 자위하는 것을 깨진 양심시 허락치 않

기때문에 우리는 최루탄가

시에 보다 많은 눈물을 흘린다.

날라라하는 들과 화염병, 원가루를 내 솔으며 평정

터지는 최루탄의 생생한(?)

현장에서 똑똑히 이 시대

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대학의 이상과 이광의 현

는 소식을들을 때의 기분이

어떻느냐는 약간은 앞둔것

질문에 웃으면서 대답을 피

하는 그는 「중문군방 주된

들이어서 항의하면 차라

는 못하고 미안하다고 한

다」며 자신도 최루탄에

쓰러진 적이 있었기 때문

에 반항으로 시달리는 그의

심정을 이해하고

「시위로 통구 들러지는

것도 좋은데 학교기물만

그것이 학생들 등용금으로

판해한다는 것을 자각하여

파손하지 말아달라」고 당

부하는 그를 위로하고 「하

루투루를 오는 제발 아

무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

음으로 출근한다」는 그의

마지막 말에 한층 계절의

울썸썸스러움을 느껴야만 했

다. <홍기영 記者>

오늘의 시각으로 본孝와烈

孫八洲 著「古典文學散葉」

죽 이 책의 끝자락인 論文 8

원(申論, <東人論詩總論> 연구 申論의 <後秋柳詩>와 王士禎, 元好問과 申論의詩, <晉

生集>연구, 李太白연구, 한

국문학사의 白雲閣, 鄭松江과 鄭好)과 論說 15편, 수필19

편, 序·跋7편과 부록으로 10

편의 書評 및 序·跋이 실려

있다.



論文 7편은 앞에 소개한

力을써 여러 논문집에서演

詩연구를 중심으로 가려 뽑

은 것이며 <鄭松江의 기호>

는 첫 논문이라 특별히 실

은것 같다.

論說 15편은 발표순으로

집적되었는데, 그중 『<願往生

歌>私語』와 『由莊入佛』 두편

의 논설문은 중추하면서도 힘

게 핵심으로 유도해 가는 문

이다. 그러면서 해박한 典據

로 해서 논설의 明瞭성을발

발정하고 있다. 교양국어 교

재에 넣고 실은논설문이다.

또한 <孝子烈女의 眞>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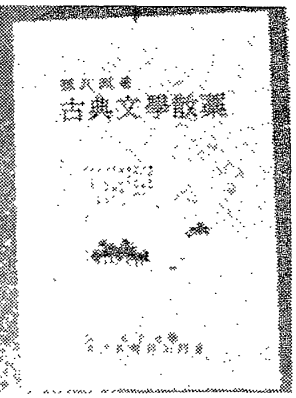
논설문은 금년5월 밀양순회

부산학회의 강연 요지로서 손

교수의 일면을 잘 나타 낸

글이다. <孝經>과 <父母恩重

중흥무진 치단은 폭넓음
논문·논설·수필등을 수록



이번에 崑山女大 교수인 孫八洲 박사의 저서 <고전문학산고>가 재직 20년 기념으로 출간되었다. 제자들의 정성어린 손길로 편집된 책이라 더욱 값진 의의가있다.

七山 孫박사의 力을써 <申論全集> <申論研究> <申論詩研究>를 이미 학계에

상제했으며 학문연찬의 바쁜

중에도 11대조인 오한선조의

<오한선생문집>과 <七禮志>를

편역하여 문장을 빛냈바

도 있다.

孫교수는 강산이 두번씩 변

하는 세월을 繁露研究에 오

로지 전입하는 우리 주변에

서 드물게 보는 학자이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20년가

까운 세월을 자하의 주변을

발췌하고 있는 처지지만 그의

호한한 문학세계를 이해하려

면 지난 세월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따라야 할것

이다」라며 그의 <申論詩文

學研究>후기에서 결손해한다.

실로 자하의 문학세계란 金

澤榮의 <申論詩集序>대로蘇

軾을 스승으로 삼고 徐衡과

王維와 陸游를 드나들었음뿐

아니라 손교수의 論考가 방

증하듯이 李白·杜甫·白居易

등 唐人은 물론 黃庭堅·元

好問·虞集·王士禎·翁方綱·

吳興棨를 송·금·원·청조의

대가를 두루 융성한 博學多

識과 호백구수한 用事, 허실

상배한 諸品이 그 연원의깊

음을 증변해있다.

뿐만 아니다. 역시 장강의

의評대로 『신렬스러운 계우집

이나 중흥무진으로 치닫는 폭

념들이 단상을 갖추어 5백

년 이래 변화무쌍한 格調가

있다」했는가 하면, 『꿈기도

하고 소박하기도 하고 환상

적이기도 하고 실재적이기도

기도 하여 천만가지의 정서

와 사실을 마음대로 조작하

여 살아 움직이지 않음이었다

」하였음은 鮮末奇才의 대

성을 잘 나타낸 大文이다.

따라서 자하의 시문학연구

는 자하 한 작가·작품연구

가 아니라, 韓中詩文學의 계

보와 그 文藝美學, 나아가受

容美學의 집대성이라하겠다.

이런 점에서 손교수는 60

년대부터 家學의 바탕 위에

한국문학학계의 내노라하는 학

자들의 私塾을 두루거쳐, 65

년도 석사학위논문<申論의

東人論詩總論>을 내놓았으

니 벌써 鄭野를 팔목케 했

던 有志鄭의 조짐이었음을

우리는 잘 안다.

이번에 상제된 <古典文學散

葉>의 구성은 모두 4부로

되어 있다.

출

발

순

한

문

학

사

학

사

학

사

학

사

학

사

학

사

학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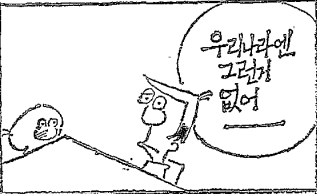
롯데인삼맛찜에는 인삼 엑기스가 들어있습니다

인삼의 맛을 찜으로 즐긴다!
인삼 엑기스를 넣어 만든 인삼맛찜은
대한민국 전매청 허가품입니다.
압안! 답답할 땐 인삼맛찜을 씹으세요.
인삼 엑기스의 씹힐한 맛에
압안! 개운해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롯데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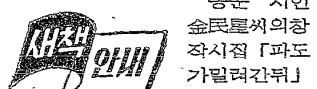
여로니

오 랑
<22>



파도가 밀려간 뒤

金民昊 著



다누어져 제1부 공룡도시, 제2부 놀라와 바닷고목과, 제3부 고함의 하늘, 제4부 아무도 없는 교실에 앉아 등의 주제로 해서 총 52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전우체·131면·3,000원>

해 뜨는 곳의 시

詩精神 同人 共著

지정된 동인지 그림이 Mook로 발간되었다. 현재 한국문단에서 활약중인 기성시인들로서 강우식 강여정 김진철 김동환 김용태 박재천 이원철 이영철 이만 정진규 홍신선 등의 모두 11인의 작품이 실려 있다. 강우식씨의 실연 10수를 비롯 총 46수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다.

<영신문화사 163면 2,000원>

사랑죽음진실의말을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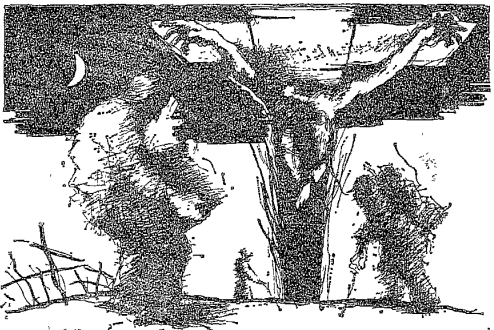
吳學榮 著

동문 작가 吳學榮의 옛세이집이 「사랑 죽음 진실의 말을 찾아서」라는 책명으로 출간되었다. 우정과 사랑, 행복이란 등의 테마로 엮은 8편의 단편을 비롯하여 사랑·人間·旅程斷想·文學이라는 부제로 총 6개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으며 필자의 그동안의 문학세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웅성출판·292면·3,000원>

사이공의 흰옷

베트남의 위대한 작가, 구엔 반 봉의 「사이공의 흰옷」은 1963년-고된 디엡점령이 타도된 해-의 세와 독재, 그리고 경제적 착취 속에서 사회적, 도덕적 타락으로 패반의 거리로 되어버린 남베트남의 도시 사이공이 무대가 되고 있다. 사이공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운동에 투신한 구엔



치흥이란, 여학생의 처절한 삶, 그리고 그녀의 동료들과의 동지애가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인간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책의 주인공인 흥은 가난 속에서 아버지 잃고, 가난의 극복을 목적으로 사이공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고생하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은 흥은 어느 학생보다도 가장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낙제까지 해가며 학생운동에 헌신하는 흥의 갈등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어머니가 서럽게 눈물 흘리는 모습이 흥은 자신이 어찌했는가? 구엔 치흥의 그러한 갈등의 해결은 관념 탈피를 향한 일상생활과의 지대한 싸움 속에서 나타난다.

다시말해서 탈락의 혁명이 아닌

는 투쟁의 시간을 보낸다. 이런 과정 속에서 프라치 반의 밀고에 의해 투옥된다.

民衆 위한 이데올로기만이 민주화의 길은

온갖 역경 딛고 일어서는 한 人間像 그려

독특한 고문과 아비한 속해에 대해, 「사이공의 흰옷」이 부르고 깨어지더라도 그 모든 고문은 부패와 타락과 부도덕함의 구렁텅이에 빠진 조국을 위한 고충이므로 운동의 승고함이나 아름다운 죽음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구엔 치흥의 말을 읽을수록 우리는 많은 부끄러움과 동시에 새로운 결의를 가슴에 품게 된다. 인간해방운동을 하라 투옥된 당시의 고된 디엡 점령도 용공분자란 터무니없는 오해로 탄압에 열중했다는

김 중 찬

<문화대 출판>

은 평일 하오 5시, 7시30분, 주말 하오 4시, 6시30분 각각 하오 4시·7시 하루 2회 공연.

「나는 어이 들이 되지 못하고」 공연

오는 13일까지 문예회관 대극장서 극단 배우극장에서는 姜桂植 姜의 古稀기념공연으로 尹福善과 「나는 어이 들이 되지 못하고」

을 문예회관 대극장무대에 오는 13일까지 올린다. 공연시간은 하오 4시·7시 하루 2회 공연.

「어두워질 때까지」 공연

내달 7일까지 센터 파랑새극장 극단 풍경에서 프래드릭노트작 이응우연의 「어두워질 때까지」를 센터 파랑새극장 무대 위에 내달 7일까지 올린다. 공연시간은 하오 4시30분, 7시30분, 하루 2회 공연.

자살소동(?)

리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잠간 슬픈 척 하고 어느새 그들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쉬는족의 삶(?)을 택했다」는 오명을 씻지도 못한채, 미국의 독립운동가 페트리·헨리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다. 아마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죽음을 택했을 것이다. 그것이 스스로 복수를 품는 것이든, 끝까지 투쟁하다 쓰러지는 것이든 간에. 모든 자살을 자유를 향한, 민주를 향한 죽음이라고는 죽음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대립에 시달린 중·고생의 죽음, 취업 때문에 죽어간 여대생들, 사회민주화를 반박하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산화해간 그 슬픈 열혈들. 이 땅의 젊은이들의 죽음을 이제 어찌할 것인가. <문화대> 배후장이 10월, 무궁이 5월이라고 한다. 1년간 딸을 낳지 못하는 정발 복창처럼 일어난다. 그들의 심정처럼 두·배후가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다고 한다. 문득 지난날의 소꿉 생각이 난다. 또 자살하는 청년이 생기는 거나 아닌지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勝>

"당신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갔어요."

스티븐·스필버그의 「컬러퍼플」



▲「컬러퍼플」은 스티븐·스필버그가 감독한 영화로, 주인공인 셀리아의 이야기를 다룬다.

누이 부시게 피어있는 코스모스의 진홍빛 (purple) 필단을 만삭이 다된 언니와 철부지 동생이 갈갈거리며 술대접하는 장면부터 이 영화는 관객의 시선을 일찍잡지 못하게 한다. 순해 빠진 암소의 눈을 보듯 커다란 눈망울에 조금은 바보스러워만 부지런 주인공 셀리아. 그녀는 노동력과 체력의 대상으로 남편 앨버트를 위한 봉사자와 희생의 길을 강요받는다.

「주인님」이라고 부르기를 명령하는 남편과 전처생의 아들의 괴롭힘 속에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어리고 순진하다고 얼버무리야 할 셀리아의 운명 앞에 남편은 예전의 애인인 블루스스카 「서그」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나 이 일은 훗날 셀리아의 운명의 좌표를 바꿀놓는 계기가 되었으니, 특사의 딸로서 버리숙의 신앙과 가슴속의 뜨거운 욕망 사이에서 갈라놓는 서그가 더 없이 확고 순진무구한 셀리아의 눈에서 인간 황 인간 의 뒤편에 따뜻한 시선을 던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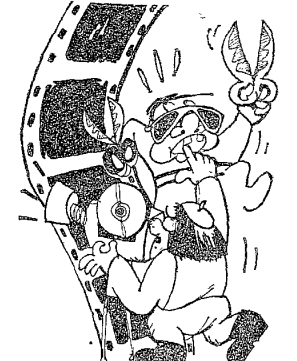
이는 곧 셀리아가 마침내 한 인간으로 눈뜨게 되는 계기마련이 되기도 한다. 남편의 간제로 야

프리카에서 동생 네리가 보내는 돈과 편지를 훔쳐보아 보다가 서그에 의해 자기손에 동생의 편지가 얹혀진다. 「당신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갔어요」라며 그녀

인생에 있어 처음으로 남편을 향해 분노의 함성을 토한다. 세월은 흘러 동생이 훌륭하게 성장한 셀리아의 두 자식을 데리고 귀국. 그들의 뜨거운 해후가 이루어진다. 이 작품은 불행에 다난 자기에 주어지 운명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아픔이 후, 코파상의 「여자의 일생」을 대항해의 감동과 일치하게 한다. 우리를 붙들고 2시간30분동안 집요하게 늘어지는 이 영상예술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가? 주인공 셀리아에 대한 연민, 한

동국 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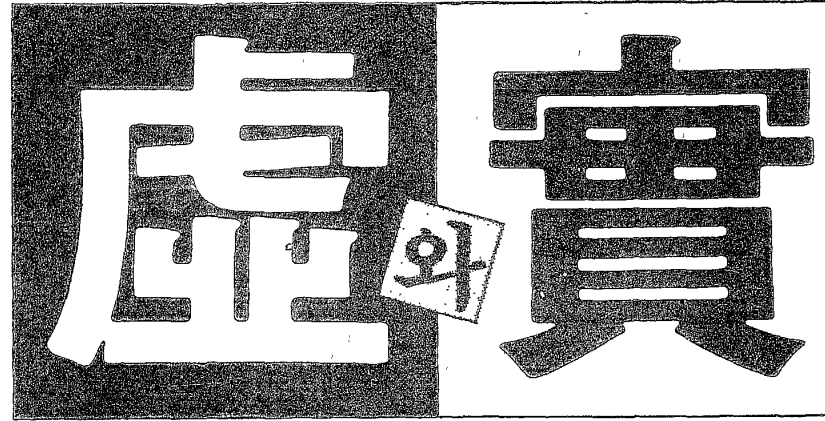
86년 영화발표회를 보고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본교 연극영화학과 주최로 개최한 「東國映畫祭」는 대학원 화 앞날의 지평을 여는 펴고 무거운 일이라 할 수 있겠다. 1백여년이라는 짧은 역사에 비해 장극의 발전을 거듭해온 영상예술은 우리 나라에 있어 알파한 산업을 틀어 非藝術의인 상업성을 떠는 등 그 후진성을 면치 못해왔다. 그러나, 본 영화제를 통해 선보인 영화들은 미래 지향적인 실험정신으로 제작되어 대영영화에 발전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된다. 이번 영화제에는 주로 「86 청소년 영화제」에 출품한 단편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학생들의 영상예술은 주로 단편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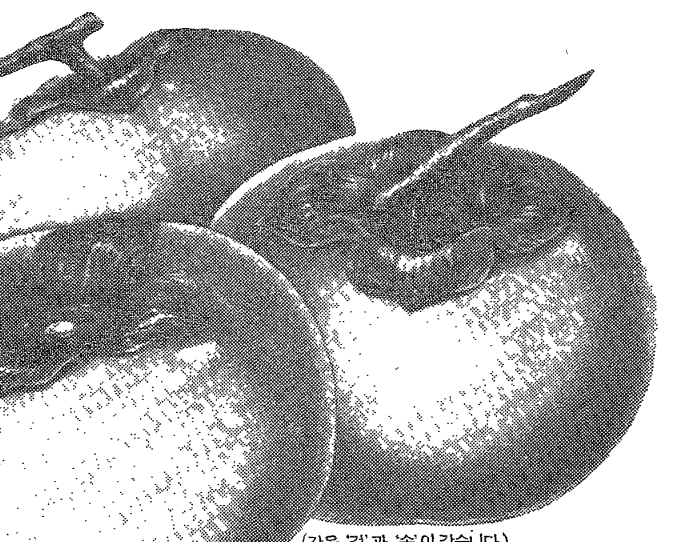
일반영화와는 달리 단편영화는 제작과정에 개입되는 영화 외적인 압력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본 영화제에는 본교를 비롯해 이화여대, 한양대, 부산산업대, 청주대, 서울예전, 중앙대, 7개교에서 12작품이 참가했는데 그중의 몇작품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부산산업대의 「방학일지」는 청소년영화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주위에 만연된 유혹 속에 쉽게 빠져들지만 곧 자신을 되찾게 되고 이를 계기로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린 秀作이라 평한다. 본교의 「잃어버린 時空」은 올해 본 문제시되었던 암살 선언서의 도발적인 한 여학생이 대학도서관에서 시체를 잃어버렸다는 것에서 그 시대와 암살을 결부시켜 이야기를 끌고간다. 젊음의 개방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의식상의 지배체제의 이데올로기를 반박하는 영상예술을 창조하는 것이 대영영화의 과제이며 그해에 우리 나라의 영화계에는 패기에 찬 새로운 영상예술이 도태할 수 있을 것이다. <남정영 記者>

진정한 이해, 그리고 관심.②



항간에 떠도는 술한 무더의 벽에 갇혀서, 병어리 냉가슴 앓듯 자내는 정보 2년이었습니다. 그동안 근거없이 떠도는 악성 무더들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 모든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겠거니 여기며 오직 맛으로, 품질로 선발 경쟁 업체와 승부를 겨루고자 했읍니다. 그러나 군납설에 이은 부도설, 기업매각설 등 농담이처럼 불어나는 지회 정보에 관한 터무니없는 무더들을 이제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만큼은 없읍니다. 진정한 기업정경은 진정한 기업윤리의 바탕위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타기업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 선전으로 얻은 일시적 우위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지성인 여러분, 저희 정보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듣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무더,

그 무더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인 지혜로움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내려 주십시오. 정보무더를 받기 위해서, 항상 정보기업 내부의 모든 자료와 서류를 과감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식품 설립은 라면 제조업은 사실 그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이윤도 아주 박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소비자 신뢰를 쌓아가지 않으면 결코 그 기반을 제대로 다질 수 없는, 절대적으로 제품의 정직성을 요구하는 업종입니다. 주위에서 「그런 어려운 여건의 업종을 시작할 이유가 없다」고 만류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보식품을 설립한 이유는 제2의 식량인 라면업에서 더욱 새롭고 더욱 좋은 제품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젊은 열기에서였읍니다. 애전부터 가지고 있던 경기도 평택당 2만 8천평에 공장을 지어, 20억의 자본투자로 정보식품을 시작했읍니다. 군납설에 대해서 군납은 1년이 채 안된 정보식품으로서는 절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었읍니다. 그 당시 한 봉지조차 납품한 적이 없었던 군납계투를 확인하시면, 아니 85년 군대에 있던 복학생들의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도 금방 알수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86년 1월에야 비로소 4개 라면 업체와 동시에 공개입찰경쟁에 의하여 연간 소요량의 12%를 공급하기 시작했읍니다. 아무런 관련없는 악성무더들에 부당하게 시달려온 저희 정보, 허위와 과장으로 깃들려온 저희 정보의 진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지성인 여러분의 도움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보식품



(같은 길과 속이 같습다.)